

롯데멤버스·롯데자이언츠와 함께 유니세프 `Schools For Asia` 캠페인 기부금

올 시즌 부산 사직구장 입장관중 90만1634명 달성
후원금 1억원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전달

이한나 기자 | 입력 : 2018.12.03 14:45:30



△강승하 롯데멤버스 대표와 롯데자이언츠 김창락 대표(왼쪽부터)가 지난달 30일 송상현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회장(오른쪽)에게 `스쿨스 포 아시아` 캠페인 후원금을 지난달 30일 전달한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. [사진제공 = 롯데멤버스]

롯데멤버스는 롯데자이언츠와 함께 유니세프한국위원회 `스쿨스 포 아시아(Schools For Asia)` 캠페인에 2년 연속 기금 1억원을 전달했다.

롯데멤버스 강승하 대표와 롯데자이언츠 김창락 대표,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송상현 회장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달 30일 기부금 전달식을 가졌다.

`스쿨스 포 아시아(Schools For Asia)`는 네팔, 인도, 라오스, 몽골 등 11개 아시아 국가

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가난과 사회적 차별로 배움의 기회를 얻지 못하는 아시아 어린이들이 양질의 교육을 받도록 지난 2012년부터 유니세프가 진행중인 글로벌 프로젝트이다. 특히 부산 사직구장을 찾은 관람객 1명당 후원금 100원씩 적립해 올 시즌 입장관중 90만1634명을 달성하고 후원금 1억원을 모아 유니세프한국위원회에 전달했다.

신병휘 롯데멤버스 마케팅부문장은 "올해도 지난해에 이어 많은 관중들이 부산 사직구장을 방문해 목표했던 기부금 1억원을 전달할 수 있었다"며 "어려운 환경의 아시아 아이들이 양질의 교육을 받고 꿈을 키워 나갈 수 있길 응원한다"고 밝혔다.

[이한나 기자]

[© 매일경제 & mk.co.kr,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]